DEGURR MARKET CLOSE · 데구르르의 마감시황

2026.09.07 (월) 장마감 | 0907 | +308.18p · 7,000까지 4.61p · 종가≒고가 | 외인 +2.59조 · 기관 +2.65조 — 반등의 조건 충족 | 개인 −6.84조 · 거울상 방향 역전

개인이 던진 6.8조를 외인·기관·자사주가 전부 받았다 — +4.61%, 7,000까지 4.61p: '반등의 조건'이 하루에 다 충족됐다

지난주 목요일 판에 적었던 반등의 조건은 "외인·기관의 순매수 전환"이었다. 월요일, 그 조건이 사상급 규모로 왔다 — 외국인 +2조5,862억·기관 +2조6,495억(금투 +2조2,181억: 지난주 던진 그 손이 돌아왔다). GPT-6 Astra가 대규모 GPU로 학습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AI 연산·메모리 수요 기대가 재점화됐고, 투톱 재고 10일 미만·HBM4의 범용 D램 잠식이라는 공급 부족 서사가 붙었다. 금요일 밤 고용 서프라이즈로 9월 인상 확률이 50%대 후반까지 올라왔지만 시장은 금리 대신 AI를 샀다. 삼전 +5.68%·하이닉스 +8.26%로 코스피 6,995.39 — 고가와 0.01p 차이의 고가 마감, 7,000까지 4.61p. 다만 이 6.8조의 매수 맞은편엔 개인 −6조8,373억이 있고, 코스닥에선 외인·기관이 빠져나왔다 — 새 돈의 유입과 시장 안 재배치가 섞인 랠리라는 단서도 함께 적는다.

ⓒ 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똥밭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
코스피	코스닥	외인+기관 · 당일 핵심	거래대금 (코스피)	원/달러 · WTI
6,995.39	822.19	+5조2,357억	21.76조	1,345원
▲308.18 (+4.61%) · 종가≒고가 (6,995.40)	▲8.69 (+1.07%) · 외인·기관 이탈로 제한	반등의 조건 충족 — 금투 +2조2,181 재유입	+22.8% · '상승일 21조' 재검증 통과	장중 1,330원대 · WTI 92弗에도 +4.61%

※ 미수신 명시: 수급 브리핑 마감판(비차익·[0785]·미결제 확정)·9/4(금) 수급 전체(기타법인 연속일수 판정 보류)·예탁금 갱신 미수신 — 수신 시 소급 갱신. 파생 누적·VKOSPI는 리포트 차트 판독 근사. 지수·수급·거래대금·OHLC는 장마감 확정치(FnGuide 지수추이). 9/4(금) 대금·OHLC는 엑셀로 소급 확인(판 미제작분).

MONEY FLOW · 나의 중심은 항상 돈의 흐름

거울상의 방향이 뒤집혔다 — "개인 −6조8,373 ↔ 외인·기관·자사주 +6조8,708"

2주간 거울의 왼쪽엔 늘 외인·기관(매도)이, 오른쪽엔 개인·자사주(매수)가 있었다. 오늘 자리가 바뀌었다 — 그리고 자리가 바뀐 날 지수가 +308p다. 8/20(+5.89%)과 같은 구조의 재연: **이 시장의 방향은 받는 쪽이 아니라 던지는 쪽의 반대편, 즉 외인·기관이 정한다.** "개인이 받는 시장은 빠지고, 개인이 파는 시장은 오른다"는 8월의 법칙이 상승 방향으로 재확인된 날.

① 외국인 +2조5,862억
매수 전환 — 진앙에서 진앙으로
매수: 하이닉스·삼전·삼성전기·SK스퀘어·효성중공업·LG전자
2주 내내 매도 1위였던 하이닉스(+8.26%)가 오늘 매수 1위 — "외인 하이닉스 전환일이 분기점"이라던 관전이 그대로 실현. 선물도 누적 사이클 최고치로 급증(≈+10조, 근사), 콜옵션 +400억 스파이크까지 — 현물·선물·옵션 세 채널 동시 상방

② 기관 +2조6,495억
금투 +2조2,181 — 던진 손의 귀환
삼전·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대형주 확대
9/2에 −1조4,310을 던졌고 9/3 장중 −243p 왕복을 만들었던 금투가 +2.2조로 돌아왔다 — 9/2 관전 "금투 재유입 = 반등 주체 확인"이 지연 충족. 투신 +3,502·사모 +367까지 전 계정 매수

③ 개인 −6조8,373억 · 자사주 +1조6,351억
차익 실현 사상급 · 자사주는 그대로
거울상 4번째 — 차이 335억
지난 2주 조정에서 받았던 물량의 차익 실현 — 8/20에도 급등일에 개인이 팔았다. 기타법인은 +1조6,351억으로 변함없이 매수 (9/4분 미수신 — 확인 시 13일 연속, 9/4 제외 누적 +18.27조)

돈이 들어간 곳 ▲
- **메모리·소부장** — 하이닉스 +8.26% · 삼전 +5.68% · DB하이텍 +12.12% · 티에스이 +10.57% · 피에스케이홀딩스 +8.33% · 주성 +4.99% (재고 10일 미만 + HBM4 잠식 + P4·P5 신규 팹·후공정 발주 재개 기대)
- **원전·가스터빈·연료전지** — 삼미금속 +22.16% · SNT에너지 +14.98% · 두산퓨얼셀 +13.80% · 한전기술 +13.66% · 비에이치아이 +12.83% · 두산에너빌 +10.98% (텍사스 6.3GW 확정 + 원전 8기 대미 합의 포함 가능성)
- **전력기기·전선** — 가온전선 +10.61% · 효성중공업 +8.53% · HD현대일렉 +6.86% · LS ELECTRIC +5.99% (변압기 납기 2~3년 — 수주잔고·병목에 초점)
- **피지컬 AI** — 인탑스 +8.74% · LG전자 +6.20% (베어로보틱스 프리IPO 보도 — 회사는 "결정된 사항 없다" 공시)

돈이 빠진 곳 ▼
- **수출 소비재** — 삼양식품 −6.14% · 에이피알 −2.54% (원화 1,330원대 터치 — 환산 실적 둔화 우려)
- **2차전지 일부** — 엘앤에프 −5.61%(3,000억 전환사채 — 희석·재무 부담) · 삼성SDI −1.28% · OCI홀딩스 −2.42%
- **코스닥 수급** — 외인 −724억·기관 −1,310억 동반 이탈: 코스닥 자금의 코스피 이동, 올해 초 대형주 장세 패턴

SECTION 00

전일 대비 —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나

🟢 좋아진 것
- **반등의 조건 충족** — 외인 +2.59조 · 기관 +2.65조 동반 순매수 전환 (리포트가 명시했던 그 조건)
- **금투 재유입 완결** — +2조2,181억: 9/2 관전 ②가 사흘 만에 지연 충족
- **외인 하이닉스 전환일** — 매도 1위 → 매수 1위, +8.26%: 순환매의 반도체 복귀 분기점 통과
- **종가≒고가 +308.18p** — 갭 +223.6 + 장중 +84.6 동반 상승, 되밀림 없는 마감 (8/27 시가=고가의 정반대)
- **'상승일 21조' 재검증 통과** — 21.76조(+22.8%), 9/3 왕복 대금에 걸었던 단서 해소
- **더블 바텀 사수 확정** — 9/4 저점 6,632.77 · 9/7 저점 6,867.91: 저점 계보가 다시 상향
- **코스닥 800 회복** — 822.19, 9/4(813.50)에 이어 이틀째 상승

🔴 나빠진 것 · 단서
- **고용 서프라이즈** — 미 8월 비농업 예상 대폭 상회 → 9월 인상 확률 50%대 후반: 지표 자체는 매파 (시장이 무시했을 뿐)
- **WTI 92弗** — 90 위 고착 지속·상승, 유가발 물가 고리는 미해소
- **확산 제한** — +4.61%에 상승 479:하락 381: 지수 상승률 대비 좁은 랠리 (대형 반도체·산업재 집중)
- **코스닥 소외 재확인** — 외인·기관 동반 이탈, 장중 −0.72p: 수급의 코스피 이동
- **VKOSPI +8% 급등(≈42)** — 상승일의 변동성 급등: 콜 수요發, 만기(9/10) 직전 양방향 옵션 동시 보유 상태
- **개인 −6.84조** — 받았던 물량의 차익 실현: 8/20 이후 랠리에서도 개인은 팔며 올랐다
- **9/4 수급 미수신** — 기타법인 연속일수·금요일 수급 공백 (소급 대기)

한 줄 판정: 2주간 "자사주 원톱"이던 시장에 외인·기관이 5.2조를 들고 돌아왔고, 그 방아쇠는 금리가 아니라 AI였다 — 고용 서프라이즈(인상 확률 50%대 후반)를 시장이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의 성격 규정이다: **이 시장의 우선순위는 금리 < AI 수요.** 남은 질문은 이 5.2조가 '새 돈'이냐 '재배치'냐 — 코스닥 이탈과 개인 6.8조 매도가 맞은편에 있다는 점에서 절반은 재배치다. 7,000 안착과 투톱 후속 매수가 그 답을 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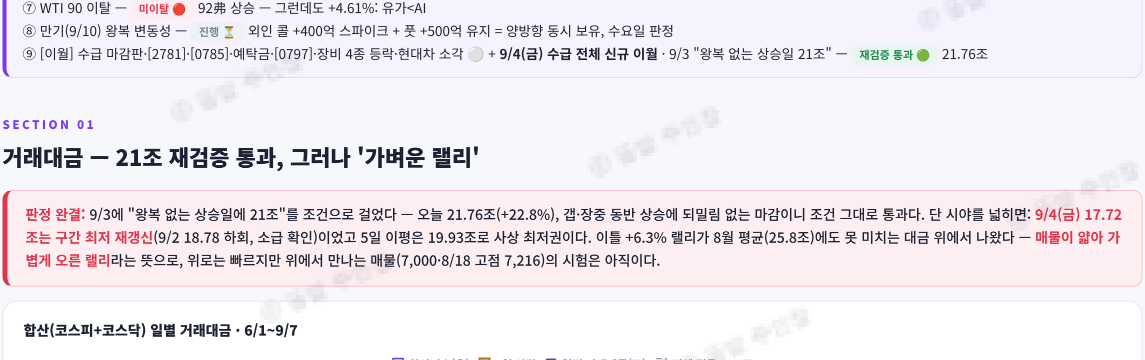
📋 전판(9/3, 주말 경유) 관전 포인트 판정
① 고용보고서 채점 — 지표 🔴 예상 대폭 상회 → 9월 인상 확률 50%대 후반 / 반응 🟢 시장은 금리 대신 AI를 샀다 — "금리 부담보다 AI 연산 수요·메모리 공급 부족이 우선 반영"(리포트) = 우선순위 명제 수립
② 더블 바텀 6,408.82 사수 — 사수 확정 🟢 9/4 저점 6,632.77 → 9/7 저점 6,867.91: 이탈 없이 이틀 +6.3%
③ 외인·기관 순매수 전환 — 대충족 🟢🟢 +2.59조 · +2.65조 (사이클 최대 동반 매수) — 9/2 관전 ② 금투 재유입도 +2.22조로 완결
④ 순환매 방향 — 반도체 복귀 🟢 외인 하이닉스 전환일 = 오늘. 금융·조선 → 반도체·전력·원전으로 주도 교체
⑤ 코스닥 800 회복 — 회복 🟢 822.19 / 소외 단서 🟡 외인·기관 이탈, 개인 4일째의 결말은 '지수 회복 속 수급 이탈'
⑥ 엔캐리 되감기 — 관찰 ⚪ 원화 1,330원대 터치(엔 동조) —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·저가 달러 매수가 완충
⑦ WTI 90 이탈 — 미이탈 🔴 92弗 상승 — 그런데도 +4.61%: 유가<AI
⑧ 만기(9/10) 왕복 변동성 — 진행 ⏳ 외인 콜 +400억 스파이크 + 풋 +500억 유지 = 양방향 동시 보유, 수요일 판정
⑨ [이월] 수급 마감판·[2781]·[0785]·예탁금·[0797]·장비 4종 등락·현대차 소각 ⚪ + **9/4(금) 수급 전체 신규 이월** · 9/3 "왕복 없는 상승일 21조" — 재검증 통과 🟢 21.76조

SECTION 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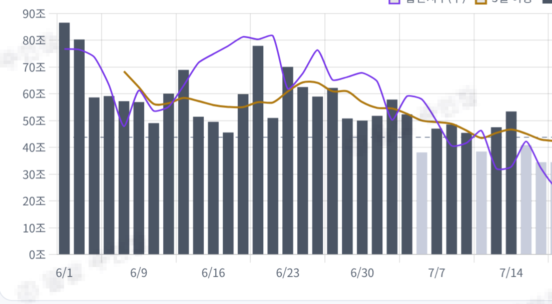
거래대금 — 21조 재검증 통과, 그러나 '가벼운 랠리'

판정 완결: 9/3에 "왕복 없는 상승일에 21조"를 조건으로 걸었다 — 오늘 21.76조(+22.8%), 갭·장중 동반 상승에 되밀림 없는 마감이니 조건 그대로 통과다. 단 시야를 넓히면: **9/4(금) 17.72조는 구간 최저 재갱신**(9/2 18.78 하회, 소급 확인)이었고 5일 이평은 19.93조로 사상 최저권이다. 이틀 +6.3% 랠리가 8월 평균(25.8조)에도 못 미치는 대금 위에서 나왔다 — **매물이 얇아 가볍게 오른 랠리**라는 뜻으로, 위로는 빠르지만 위에서 만나는 매물(7,000·8/18 고점 7,216)의 시험은 아직이다.

합산(코스피+코스닥) 일별 거래대금 · 6/1~9/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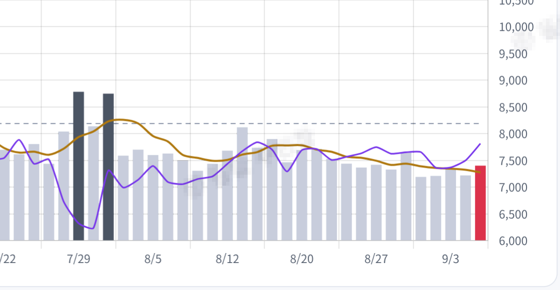


코스피 — 21.76조 (전일比 +22.8%)



9/4 17.72조(구간 최저 재갱신) → 9/7 21.76조. 5일 이평 19.93조 — 최저권에서 첫 반등. 다음 판정선: **7,000 위에서 대금 23조+ 동반 여부**(고점 매물 소화의 물증).

코스닥 — 6.33조 (전일比 −5.5%)



9/4 6.70조(+35.8%)로 늘었다가 오늘 감소 — 지수는 +1.07% 올랐지만 외인·기관이 팔고 대금이 줄었다: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이동. 비중 22.5%는 코스피 급증 대비 착시 아님(절대 감소).

구간	합산 평균	코스피	코스닥	코스닥 비중
6월 / 7월 / 8월	60.4 / 43.0 / 31.8조	50.3 / 36.9 / 25.8조	10.0 / 6.1 / 6.0조	16.6 / 14.2 / 18.9%
9/2 / 9/3	24.23 / 27.09조	18.78 / 22.17조	5.46 / 4.93조	22.5 / 18.2%
9/4 (금 · 소급)	24.42조	17.72조 구간 최저 재갱신	6.70조 (+35.8%)	27.4%
9/7 (당일)	28.09조 +15.8%	21.76조 +22.8% · 21조 통과	6.33조 −5.5%	22.5%

전체 평균 43.8조 · 5일 이평: 코스피 19.93조(최저권 첫 반등) / 코스닥 5.61조(↑) · 기간 최저: 코스피 9/4 17.72조 · 합산 9/1 23.86조 — 다음 판정선: 7,000 위 대금 23조+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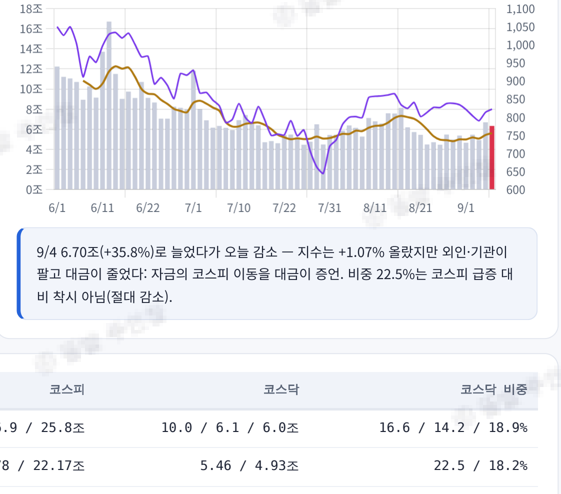
SECTION 02

수급 — 자리를 바꾼 거울상

코스피 주체별 — 전판(9/3) vs 당일 (억원)

특수 차트 — 거울상 4연속: 오늘은 방향이 반대 (억원)

~9/3 판 쪽=3주체 → 9/7 판 쪽=개인 · 받은 쪽=외인·기관·자사주 (방향 역전)



8/31 −1.58↔+1.58 / 9/1 −1.66↔+1.67 / 9/3 −1.59↔+1.59 (3주체 매도 ↔ 자사주) → **9/7 개인 −6조8,373 ↔ 외인·기관·자사주 +6조8,708 (335억 차).** 거울은 유지, 자리만 교대 — 그리고 교대한 날 +308p. 방향을 정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표본.

구분	전판 (9/3)	당일 (9/7)	변화
코스피 외국인	−4,196	+25,862	매수 전환 하이닉스·삼전·삼성전기·SK스퀘어·효성중공업·LG전자 — 매도 1위였던 하이닉스가 매수 1위로
코스피 기관	−2,153	+26,495	매수 전환 금투 +2조2,181(9/2 −1.43조의 귀환)·투신 +3,502·전 계정 매수
코스피 개인	−9,551	−68,373	차익 실현 사상급 조정기에 받은 물량 출회 — 8/20 패턴 재연
코스피 기타법인	+15,936	+16,351	매수 지속 9/4분 미수신 — 확인 시 13일 연속 (9/4 제외 누적 +18.27조 = 55조의 33%)
코스닥 개인	+2,952	+1,902	5일째 매수
코스닥 외국인	−1,095	−724	이탈 지속 코스피로 이동
코스닥 기관	−1,846	−1,310	이탈 지속 금투 −956 — 반도체 장비 일부만 매수, 2차전지·바이오·화장품 차익

기관별 상세 (억원, 확정)

주체	코스피	코스닥
금융투자	+22,181	−956
투신(일반)	+3,502	+70
보험	+157	−2
연기금등	+97	−44
은행 / 기타금융	+60 / +133	−14 / −133
사모펀드	+367	−229
기타법인	+16,351	+119

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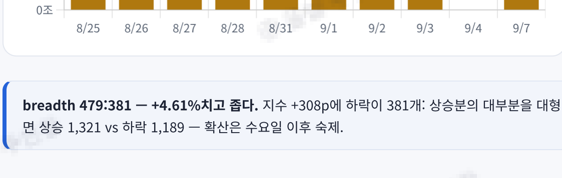
① **금투 +2.22조의 의미.** 9/2 −1.43조(금투 주범) → 9/3 왕복 → 9/7 +2.22조. "오늘 빠져나간 금투가 저가에 재유입되는지가 반등 주체 확인"이라고 적었던 그 판정이 사흘 만에 지연 충족. 프로그램·LP 성격의 이 계정이 사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건 바스켓이 '지수 축소'에서 '지수 확대'로 뒤집혔다는 뜻 — [2781] 소급으로 비차익 구성 확인 대기.

② **새 돈인가 재배치인가.** 매수 5.2조의 맞은편: 개인 −6.84조(차익)와 코스닥 외인·기관 이탈. 즉 상당 부분이 들어온 돈과 시장 안에서 옮긴 돈이 섞여 있다 — 리포트도 "코스닥 수급이 코스피로 옮겨가는 흐름, 올해 초 상승 장세와 유사"로 규정. 새 돈의 물증은 예탁금 증가로 확인해야 한다(미수신·소급 대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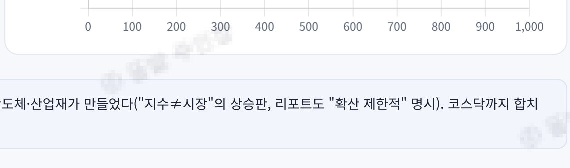
③ **자사주의 자리 이동.** 2주간 '유일한 매수'였던 기타법인 +1.64조가 오늘은 전체 매수의 24%로 내려왔다 — 원톱에서 보험(외인·기관)에게 바통을 넘긴 셈. 남은 총량 약 37조: 이제부터 자사주는 보험이고 방향은 외인·기관이 쥔다.

기타법인 순매수 추이 (억원)

9/4 미수신(공백) — 확인 시 13일 연속 · 9/4 제외 누적 +18.27조 (55조의 33%)



breadth — 전판 vs 당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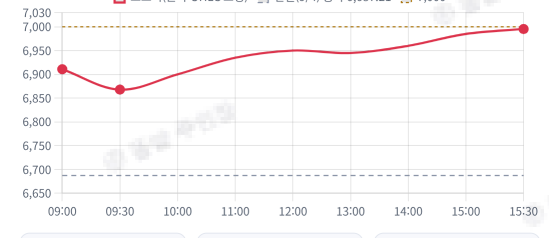
breadth 479:381 — +4.61%치고 좁다. 지수 +308p에 하락이 381개: 상승종목의 대부분을 대형 반도체·산업재가 만들었다("지수≠시장"의 상승판, 리포트도 "확산 제한적" 명시). 코스닥까지 합치면 상승 1,321 vs 하락 1,189 — 확산은 수요일 이후 숙제.

SECTION 03

장중 궤적 — 갭으로 열고 장중에 더 올려 고가로 닫았다

갭 분해: 코스피 +308.18p = 갭 +223.57p(73%) + 장중 +84.61p(27%) — 갭·장중 동반 상승에 **종가 6,995.39 = 고가 6,995.40과 0.01p 차**: 되밀림 없는 고가 마감(8/27 "시가=고가"의 정반대). 저점 6,867.91은 오전 초 갭 위 — 갭을 한 번도 메우러 가지 않았다. 코스닥 +8.69p = 갭 +9.41 + 장중 −0.72: 상승분 전부가 갭, 장중은 외인·기관 이탈로 반납.

코스피 — O 6,910.78 / L 6,867.91 / H 6,995.40 / C 6,995.3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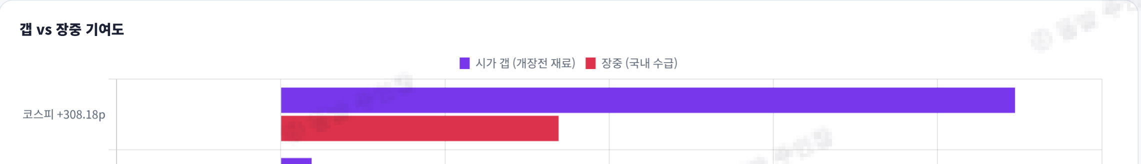
09:00–10:00	10:00–14:00	14:00–15:30
6,910.78 → 6,867.91 저점 → 재상승	6,950선 안착	6,995.40 고가 마감
+223p 갭업 출발, 밀은 [illegible] 소화가 저점 → 갭 미봉	외인·기관 매수 지속, 전력·원전으로 확산	막판 수급 재유입 — 7,000까지 4.61p

레벨 지도 — 이제 위를 본다

레벨	지수	의미
당일 종가	6,995.39	7,000까지 4.61p
심리 저항	7,000	안착 여부 = 리포트 명시 관전 1번
8/18 고점	7,216.62	사이클 전고 — 상단(+3.2%)
지지 1	6,910.78	당일 시가·갭 상단
지지 2	6,687.21	9/4 종가 — 갭 하단
최후 보루	6,408.82	더블 바텀 (사수 확정)

2주 만에 표의 방향이 뒤집혔다 — 저점 대신 상방 레벨. 단 +223p 갭은 미봉 갭: 조정 시 6,910~6,772(갭 구간)가 첫 시험대.

갭 vs 장중 기여도



SECTION 04

섹터 인과 지도 — 오늘의 동인 3개

총평: 동인은 ①GPT-6 Astra發 AI 연산·메모리 수요 재점화(+공급 부족 서사) ②대미 투자 실체화(텍사스 6.3GW 확정·원전 8기 포함 가능성) ③고용 서프라이즈의 무시(금리<AI). 첫째가 투톱과 소부장을, 둘째가 전력·원전·가스터빈을 세웠고, 셋째가 이 랠리의 성격을 규정했다.

DRIVER 01 · 🟢 수요·공급

GPT-6 Astra — AI 에이전트의 연산·메모리 청구서
- GPT-6 Astra가 대규모 GPU로 학습 공개 → AI 에이전트 고도화 = 연산·메모리 수요 기대
- 삼전·하이닉스 메모리 재고 10일 미만(KB증권) — HBM4는 같은 용량에 범용 D램 웨이퍼 3배 소모: 범용 캐파 잠식 → 내년 "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공급" 판매 물량 고갈 가능성
- AI 인프라 투자 중 메모리 비중 14%(작년)→40%(올해)→57%(내년) — 투톱은 3개월 고점比 −38% 저평가 구간 관점
- P4·P5 신규 팹 투자 + HBM 후공정 장비 발주 재개 기대 → 소부장 확산

→ 하이닉스 +8.26% · 삼전 +5.68% · DB하이텍 +12.12% · 티에스이 +10.57% — SOX +3.37%(금) 연동

DRIVER 02 · 🟢 정책·계약

대미 투자 1호 확정 — 전력 밸류체인 점화
- 텍사스 6.3GW 가스복합화력 확정 — 가스터빈·발전기자재 밸류체인 상승 촉발
- 한미 합의에 미 원전 8기 건설 포함 가능성 — 9/18 최종 서명 전망: 설계→주기기→보조기기 전단 투자심리
- 두산에너빌 xAI 발전 프로젝트 참여 기대 · 두산퓨얼셀 미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수주 · 정부 베라루빈 NVL72 서버 140대 3조8,500억 예산

→ 삼미금속 +22.16% · SNT에너지 +14.98% · 두산퓨얼셀 +13.80% · 한전기술 +13.66% · 두산에너빌 +10.98% · 가온전선 +10.61%

DRIVER 03 · 🟡 매크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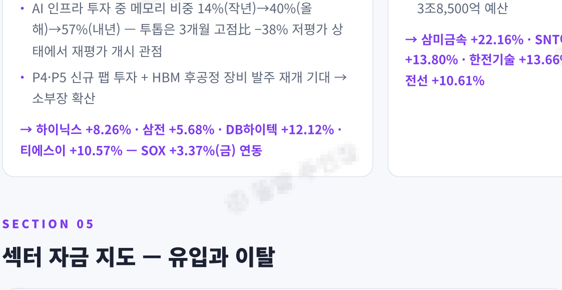
고용 서프라이즈를 무시한 시장
- 미 8월 비농업 예상 대폭 상회 → 9월 인상 확률 50%대 후반으로 급등
- 그런데 SOX +3.37%(금) · 코스피 +4.61%(월) — "금리 부담보다 AI 수요·공급 부족이 우선 반영"
- 원화 강세(장중 1,330원대 터치)가 외인 코스피 매수를 지지 — 단 환율 민감 수출주엔 역풍

→ 상승: 반도체·전력·원전 / 하락: 삼양식품 −6.14% · 에이피알 −2.54% (환산 실적 우려)

SECTION 05

섹터 자금 지도 — 유입과 이탈

돈이 들어온 곳 ▲ (대표 종목 등락 %)



돈이 빠진 곳 ▼ (대표 종목 등락 %)

한 줄 요약: 오늘 지도의 펜은 GPT-6가 쥐고 색칠은 대미 투자가 했다 — AI의 연산 청구서(메모리)와 전기 청구서(전력·원전)가 같은 날 결제됐고, 환율 청구서(수출 소비재)만 반대편에 남았다.

SECTION 06

두각 종목 — 최근 2일 내 개별 뉴스

코스피
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제
SK하이닉스	+8.26%	9/7 재고 10일 미만 + GPT-6 연산 수요 — 외인·기관 매수 1위로, 매도 1위→매수 1위 전환일
삼성전자	+5.68%	9/7 재고 10일 미만·HBM4 잠식·P4·P5 기대 — 외인·기관 동반 확대
SK스퀘어 · SK	+8.07 / +6.63%	직접 뉴스 없음 하이닉스 지분가치 연동
두산에너빌리티	+10.98%	9/7 xAI 발전 프로젝트 참여 기대(가스터빈·스팀터빈·배열회수보일러) + 텍사스 6.3GW
효성중공업 · HD현대일렉	+8.53 / +6.86%	9/7 변압기 납기 2~3년 — 병목 구조 장기화, 외인·기관 동반 매수
LG전자	+6.20%	9/7 베어로보틱스 프리IPO·나스닥 상장 검토 보도 → 회사 "결정된 사항 없음" 해명 공시 — 보도 기반 상승 주의
삼양식품	−6.14%	9/7 원화 1,330원대 — 환산 실적 둔화 우려, 수출 소비재 동반 약세

코스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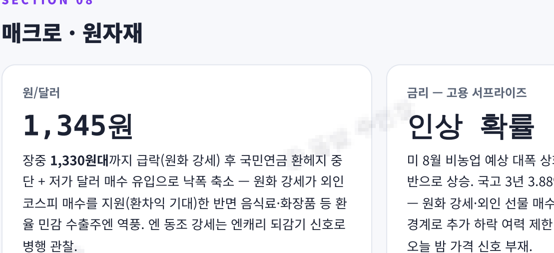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제
삼미금속	+22.16%	9/7 원전 8기 대미 합의 포함 가능성 — 원전 소재 밸류체인
SNT에너지 · 비에이치아이	+14.98 / +12.83%	9/7 텍사스 6.3GW 가스복합 확정 — 발전기자재
두산퓨얼셀	+13.80%	9/7 미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 수주 — 북미 진출 본격화
한전기술	+13.66%	9/7 원전 설계 — 대미 원전 8기 기대
DB하이텍 · 티에스이 · 피에스케이홀딩스	+12.1 / +10.6 / +8.3%	9/7 HBM 후공정 발주 재개·팹 투자 기대 — 소부장 확산
필옵틱스	—	9/7 2mm 두께 TGV 유리기판 공개 — 차세대 패키징 (등락 미수신)
엘앤에프	−5.61%	9/7 3,000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— 설비 재원이나 희석·재무 부담 우려

SECTION 07

파생 포지션 & 변동성 — 만기 사흘 전, 양손에 옵션

VKOSPI 종가 추이

9/7 +8% 급등 — 상승일의 변동성 급등 = 콜 수요發



포지션 판독 (누적, 만기 9/10 · 차트 판독 근사)

① **외인 콜 +400억 스파이크.** 사이클 내내 ±50억 안팎이던 외인 콜 누적이 하루에 +400억 부근으로 수직 급증 — 현물 +2.59조·선물 누적 사이클 최고(≈+10조 근사)와 같은 방향. 세 채널 동시 상방은 이 사이클 처음.

② **그런데 풋 +500억도 그대로 들고 있다.** 잭슨홀 전 칼라(콜 매도+풋 매수) → 해제 → 재무장의 역사를 지나, 지금은 콜과 풋을 동시에 최대로 보유 —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에 베팅한 모양(스트래들형). 만기(9/10)까지 사흘: 어느 쪽을 청산하는지가 수요일의 관전.

③ **VKOSPI ≈42 (+8% 급등).** +4.61% 상승일에 변동성 지수가 뛰었다 — 공포가 아니라 콜 수요가 만든 급등: 시장이 위쪽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는 뜻. 리포트도 이 급등을 '올해 초 유사성'의 근거로 제시.

SECTION 08

매크로 · 원자재

원/달러
1,345원
장중 **1,330원대**까지 급락(원화 강세) 후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 + 저가 달러 매수 유입으로 낙폭 축소 — 원화 강세가 외인 코스피 매수를 지원(환차익 기대)한 반면 음식료·화장품 등 환율 민감 수출주엔 역풍. 엔 동조 강세는 엔캐리 되감기 신호로 병행 관찰.

금리 — 고용 서프라이즈
인상 확률 50%대 후반
미 8월 비농업 예상 대폭 상회 → 9월 인상 가능성 50%대 후반으로 상승. 국고 3년 3.88%대·10년 4.36% 안팎 소폭 하락 — 원화 강세·외인 선물 매수가 지지하나 미 고용·유가·FOMC 경계로 추가 하락 여력 제한(리포트). 미장은 노동절 휴장 — 오늘 밤 가격 신호 부재.

원자재
WTI $92
미·이란 충돌·호르무즈 불확실성 프리미엄으로 92弗 안팎 — 90 위 고착 지속·상승. 그런데도 +4.61%: **유가<AI**가 오늘의 우선순위. 금 4,400弗 부근 — 지정학 수요 vs 미 금리·달러 경계 상충.

SECTION 09

핵심 쟁점 — 오늘의 본질 4가지

① 반등의 조건은 충족됐다 — 이제 질의 문제
외인 +2.59조·기관 +2.65조는 조건의 '충족'이고, 새 돈이냐 재배치냐는 '질'의 문제다. 맞은편의 개인 −6.84조와 코스닥 이탈은 재배치의 물증, 외인 선물·콜 동반과 원화 강세는 새 돈의 물증 — 절반씩이다. 판정은 두 가지로: **예탁금 증가(소급)와 7,000 위 이틀째 순매수.** 하루짜리 전환(8/20 이후 재매도 전례)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.

② 7,000과 7,216 — 가벼운 랠리의 매물대 시험
이틀 +6.3%가 5일 이평 19.93조라는 최저권 대금 위에서 나왔다 — 얇은 매물 사이를 가볍게 오른 랠리라 속도는 빨랐지만, 7,000(심리)과 7,216.62(8/18 전고)엔 8월 중순 물린 매물이 있다. 통과의 물증은 **7,000 위 + 대금 23조 이상.** 미봉 갭(6,772~6,910)은 조정 시 첫 지지 시험대.

③ 만기 사흘 전 — 콜과 풋을 양손에 든 외인
콜 +400억 스파이크와 풋 +500억 보유가 공존한다. 수요일(9/10) 만기에서 어느 쪽이 청산되느냐가 단기 방향의 힌트 — 콜 실현+풋 유지면 '랠리 차익', 풋 청산+콜 유지면 '추세 전환 확신'. VKOSPI +8% 급등은 이 양방 포지션의 가격 반영이다. 9/3의 교훈(얇은 대금 위 한 주체의 왕복 = −200p)이 만기 주간엔 배가된다.

④ 코스닥 — 지수는 돌아왔는데 수급이 떠난다
800 회복(822)에도 외인·기관은 이틀째 순매도 —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이사 중이다("올해 초 상승 장세와 유사"). 개인 5일째 매수가 코스닥의 유일한 손이라는 구조는 8월 법칙의 경고 신호이기도 하다. 코스닥의 진짜 회복은 **외인·기관 동반 순매수 첫날**(9/1 관전의 미완 항목)로만 확인된다.

SECTION G

시장 문법 아카이브 — 오늘의 멘트 신설

오늘부터 신설: 마감시황·리포트 멘트 중 **시장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산업의 특성을 설명한 문장**을 골라 쌓는다. 목적은 시세가 아니라 경험치 — 같은 문장이 다른 국면에서 다시 검증될 때 시장을 읽는 문법이 된다. 누적본은 별도 파일(시장 문법 원장)로 관리, 매판 추가.

■ 시장의 성격 — 오늘 수집 5

멘트 (요지)	무엇을 배우나
"금리 부담보다 AI 연산 수요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 기대가 우선 반영됐다"	국면의 우선순위 규정 — 고용 서프라이즈(인상 확률 50%대 후반)·WTI 92에도 +4.61%. 이 시장의 서열: **AI > 금리·유가.** 서열이 뒤집히는 날이 국면 전환일
"코스닥 수급이 코스피로 옮겨가는 흐름 — 올해 초 상승 장세와 유사하다"	대형주 집중 랠리의 계절 인식 — 랠리 초입엔 돈이 지수(대형)로 몰리고 확산은 나중. 코스닥 소외는 이 국면의 사양이지 고장이 아님
"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시장 전반의 상승 종목 확산은 제한적" (479:381)	'지수≠시장'의 상승판 — 급등일에도 폭을 세는 습관: 확산 없는 급등은 다음 구간의 숙제를 남긴다
"VKOSPI가 약 8% 급등" (+4.61% 상승일에)	변동성 지수는 공포 전용이 아니다 — 콜 수요가 몰리면 상승일에도 뛴다. 상승일의 VKOSPI 급등 = 방향성 베팅 개시의 표식
"개인이 6.8조를 파는 날 지수가 +308p" (거울상 역전)	"개인이 받는 시장은 빠지고, 파는 시장은 오른다"의 상승 확인 — 방향은 외인·기관이 정한다 (8/20 표본에 이은 2번째 대형 표본)

■ 산업의 특성 — 오늘 수집 6

멘트 (요지)	무엇을 배우나
"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메모리 재고가 10일 미만으로 감소"	메모리 업황의 온도계는 **재고일수** —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. '10일 미만'은 공급자 우위 시장의 문턱
"HBM4 생산 확대가 범용 D램 생산능력을 잠식 → 2027년 공급 부족"	메모리 케파의 제로섬 구조 — HBM와 범용은 같은 팹을 나눠 쓴다. 한쪽의 호황이 다른 쪽의 공급 부족을 만드는 산업 고유의 전이 경로
"대형 변압기 납기가 여전히 2~3년"	전력기기 사이클의 지표는 주가가 아니라 **납기** — 납기가 줄기 시작하는 날이 사이클 꺾임의 신호
"단순 테마보다 수주잔고와 공급 병목에 초점을 맞춘 자금 유입"	산업재 매수의 기준 — 같은 테마라도 계약서(잔고)와 병목(납기)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값이 갈린다
"원전 8기가 합의문에 포함되면 설계·주기기·보조기기 전반의 투자심리 개선"	원전 밸류체인의 계층 구조 — 설계(한전기술)→주기기(두산)→보조기기(비에이치아이·삼미) 순으로 온기가 번지는 산업 지도
"국민연금 환헤지 중단과 저가 달러 매수 유입으로 환율 낙폭 축소"	환율의 수급 구조 변수 — 연기금 헤지 정책·실수요 달러 매수는 추세와 별개로 하단을 만드는 손. 환율도 수급으로 읽는다

SECTION 10

주요 뉴스

산업 · 기업
- **삼전·하이닉스** 메모리 재고 10일 미만 — HBM4의 범용 잠식, 2027년 공급 부족 가능성
- **두산에너빌** xAI 발전 프로젝트 참여 기대 · **두산퓨얼셀** 미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수주
- **LG전자** 베어로보틱스 해외 상장 해명 공시 — "결정된 사항 없다"
- **필옵틱스** 2mm TGV 유리기판 공개 · **엘앤에프** 3,000억 CB 발행

정책 · 경제
- **한미 대미 투자 합의**에 미 원전 8기 건설 포함 가능성 — 9/18 최종 서명 전망
- **대미 투자 1호** 텍사스 6.3GW 가스복합화력 확정 — 국내 가스터빈·기자재 기대
- **정부**, 베라루빈 NVL72 서버 140대 3조8,500억 예산 편성 (2027년)
- 미 8월 고용 예상 대폭 상회 — 9월 인상 확률 50%대 후반

해외
- **미장 노동절 휴장**(9/7 월) — 오늘 밤 가격 신호 부재, 아시아·유럽 독자 수급 구간
- **앤트로픽** 최근 11개월 약 14.8GW 데이터센터 컴퓨팅 계약 추산 — AI 인프라 경쟁 심화
- **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** 유럽 민간 최초 상업 궤도 발사 성공
- 미·우크라 정상 종전 협상 논의 — 겨울철 지원·안전보장

SECTION 11

관전 포인트

이번 주 지도 — 만기와 물가의 주간
- 화 (9/8) 미장 노동절 휴장 여파 — 독자 수급 이틀째 · 7,000 1차 시도
- 수 (9/9) 애플 아이폰 런칭 이벤트 — IT 부품 반응
- 목 (9/10) ★ **국내 선물·옵션 동시 만기** — 콜 +400·풋 +500 양방 보유의 청산 방향 / **오라클 실적**(AI 수주잔고·자본지출 효율) / 미 PPI
- 금 (9/11) ★ 미 8월 CPI — 연준 물가 우선 국면의 본편, 인상 확률 50%대 후반의 재판정

다음 판 판정 기준
① **7,000 안착 + 투톱 후속 매수** — 리포트 명시 관전 1번: 외인·기관 이틀째 순매수 여부 (하루짜리 전환 배제 판정)
② **대금 23조+ 동반** — 7,000 위 매물대 소화의 물증 (가벼운 랠리의 질 검증)
③ **확산** — 479:381의 개선 여부, 코스닥 외인·기관 동반 순매수 첫날
④ **만기 포지션** — 콜/풋 어느 쪽 청산 · 만기일 왕복 변동성 (9/3형 −200p 경계)
⑤ **예탁금 소급** — '새 돈' 판정의 최종 물증
⑥ [이월] 9/4 수급 전체·수급 마감판·[2781]·[0785]·[0797]·현대차 소각 공시

ⓒ **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똥밭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**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본 콘텐츠는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기준: 지수·수급·거래대금·OHLC는 2026-09-07 장마감 확정치(거래대금 집계 구간 6/1~9/7, FnGuide 지수추이 기준. 9/4 대금·OHLC는 엑셀 소급 확인 — 9/4 수급은 미수신). 장중 궤적 곡선은 5분 차트 판독 + 공식 OHLC 고정점의 근사. 파생 누적·VKOSPI는 리포트 차트 판독 근사. 프로그램·[0785]·예탁금 미수신 — 수신 시 소급. 섹터 등락 이유는 마감 후 확인 가능한 공시·뉴스 기준 3단계 등급 판정. 점선 밑줄 용어에 마우스를 올리면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.